

새로운 돌봄노동을 상상해 본다 Envisioning a New Era of Care Work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돌봄사회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2024년 5월 30일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3개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입법발의가 되었는데 이전 회기의 국회에서는 없던 일이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024. 10. 29. 제안),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25. 5. 1. 제안),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025. 12. 24. 제안)이 그것으로 의안명에서 그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참여연대가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2026. 2. 23.¹⁾)을 가졌는데 이 법안은 돌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책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과 노동조건을 제공할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어 손쉽게 낮은 대가를 치르는 외국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돌봄은 사람과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 기술이 어느 직무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돌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저평가하는 사이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된 노동, 때로는 비인격적인 대우에 지쳐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가능한 다른 일 자리를 찾는다. 사회서비스 사업과 예산이 증가하면서 돌봄 일자리로의 진입이 활발했지만 돌봄노동을 경험해 본 이들의 이탈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좋은 돌봄의 필요는 점점 커져가는데 일자리의 매력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일자리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적절한 보상과 인정으로 지키지 않으면 돌봄 받을 권리를 누리는 일은 요원하다.

돌봄노동은 힘들기만 한 일일까? 돌봄노동자들을 만나보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일을 통해 보수를 받고 생계를 꾸리는 목적과 더불어 ‘누군가를 돌본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동기부여가 있다. 발

1)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2015805>

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인력에게는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행동 개선과 변화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이 노동의 고됨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다.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여기서 비롯되는 낮은 보수, 인권 침해, 긴 근로시간,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자기 성장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의 부족으로 돌봄노동은 힘들기만 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돌봄노동(자)를 상상해 본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다. 돌봄노동은 물리적으로 높은 강도의 노동이다.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데는 육체적 물리력이 수반된다. 그리고 위급 상황 대비해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고강도의 신경 노동, 감각의 과부하 노동이 수반된다. 이러한 고강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가져가고, 정서적 연결은 인간이 담당하는 역할 배분을 그려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을 침대에서 휠체어/변기로 옮기거나 목욕/배변을 돕는 등,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가는 고강도 신체 노동을 로봇이나 이송 장치가 대신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발생하기 전의 미세한 징후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미리 알려줌으로써, 노동자가 맞이할 위험과 당혹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돌봄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다시 돌봄을 비용 절감으로만 접근하는 관점이다. 기술 발전이 급격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과 상용화에는 여전히 높은 비용이 든다. 만약 우리가 앞서와 같은 인공지능과 사람의 역할 배분을 상상해 보지 않고 비용 절감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했을 때, 인공지능(AI) 대신 인간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은 대상자의 선호는 배제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대신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까지 인공지능(AI)의 몫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을 비용 절감에 두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노동의 고됨을 가져가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일은 인간에게 남기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미래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도 지키면서 돌봄노동이 할 만한 일이 되는,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로 가는 온당한 길이 될 것이다.

2026. 3. 31.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 윤준병의원 등 15인 발의.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2210313호 (2025. 5. 1.)
이수진의원 등 23인 발의.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2205017호 (2024. 10. 29.)
전종덕의원 등 15인 발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제2215597호 (2025. 12. 24.)
참여연대. (2026. 2. 23.).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2015805>